



忠北大同門會報

真理
正義
開拓

발행인 : 김주섭 편집인 : 박노균 발행소 : 충북대학교총동문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개신동) 전화 : 043-261-3121 FAX : 043-272-3122 인쇄처 : 중부출판사

제16회 충동문체육대회



지난 10월 25일 모교 종합운동장에서 '제16회충동문체육대회'가 18개 팀 동문 및 가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김주섭 총동문회장 대회사, 임동철 총장 축하 그리고 선수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경기는 배구, 축구, 단체줄넘기, 800m계주, 퍼터 종목이 있었고, 가족게임 어린이 사생대회 부부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행사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가운데 한마당축제로 이어졌다. 경기 결과 종합우승은 한국농촌공사(회장 이경구, 농공71), 종합준우승은 농협(회장 이인수, 농경76), 종합3위는 경영대학원(회장 송재용, 경영81)이 했다. 종목별 우승은 배구: 충북대부설중고, 축구: 경영대학원, 단체줄넘기: 농촌공사, 800m계주: 농촌공사, 퍼터: 농협이 차지하였으며, 사생대회 대상은 박래혁(박영남, 농공85, 농촌공사)어린이, 최고 행운의 경품당선자는 김서룡(농공89, 농촌공사)동문에게 돌아갔다.

주 | 요 | 내 | 용 | 목 | 차

- 제16회 충북대학교 충동문체육대회 1
- 인사말 / 총장, 총동문회장 2
- 동문회 소식 - 총동문회 행사 2
 - 산하동문회 소식 3
 - 동문동정 4
- 학내소식 7
- 동문회비납부자명단 12
- 동문단상 / 히말라야 오지마을 기행문
박연수 13
- 충동문체육대회 참가기
신동주 15
- 광고 16

◎ 도움을 주신분 :

임동철 모교총장, 김향숙 학생처장, 신호철 교무처장, 조성찬 기획처장, 조태원 산학협력단장, 송영진 충북대병원장, 최재형(농학55), 강신우(농학61), 이창호(임학61), 유무웅(체육61),곽정수(농공63), 김현준(체육63), 정상길(농화64), 이우영(농학65), 조영호(임학65), 이학수(연초68), 김현필(체육70), 유인호(영어70), 양재욱(약학70), 임상화(약학70), 김광렬(화공71), 홍순규(수학71), 김용은(과학72), 변근원(농공72), 이한철(체육72), 김명수(체육73), 곽소신(토목74), 허 백(토목74), 박재훈(농학75), 이명원(토목76), 이인수(농경76), 정노희(화공76), 나명찬(행정77), 안재형(전기77), 조완영(수학77), 김요식(화공78), 김형근(경영78), 임병덕(역사78), 정인철(토목78), 김현택(토목79), 유운기(행정79), 이혁렬(화학79), 장덕수(농기79), 조천희(토목79), 최영호(경제79), 김수갑(법학80), 박종서(토목80), 이면재(약학80), 황영호(행정80), 김사석(체육81), 김홍연(토목81), 류홍열(토목81), 마낙영(임학81), 박완배(법학81), 신민철(토목81), 최현호(법학81), 김기동(생물83), 신현구(경제82), 이은봉(농학82), 장운식(식품82), 황운서(경제82), 성기정(법학83), 이기하(농생83), 이상수(원예83), 김법기(전자85), 최현일(환경86), 강태원(행정88), 유용철(회계91), 권광택(경정02), 이명식(경원최), 김민호(산업원), 신두철(산업원), 심재복(산업원), 장석운(산업원), 한상관(산업원), 홍순철(생활대)동문, 개신민우회, 교육자동문회, 농협충북대지점

총장 신년사



사랑하는 개신 가족 여러분!
 기축년(己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를 상징하는 동물인 소는 바로 우리 충북대학교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학이 황소를 상징물로 정한 것은 소가 근면, 순종, 인내를 상징함과 동시에 때로는 불의에 과감히 항거할 줄 아는 정의로운 동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롭게 싸울 줄 알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개척하는 충북대의

교사와 가장 잘 어울리는 동물이 바로 황소입니다.

대외적인 경제상황을 볼 때 올해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잔재주를 부리면 만사는 꼬이게 마련입니다. 우리 대학을 상징하는 황소의 해에 걸맞게 끈기와 인내력을 갖고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마음으로 개척 정신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위기를 쉽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대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법학대학원도 성공적으로 유치해냈고, 교육부분 서비스 품질지수 평가에서 국립대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각종 연구 사업 수주 실적도 전국의 우수대학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우리 대학이 전반적으로 지역 거점대학의 수준을 넘어서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완수해주신 교수, 직원, 학생 여러분들의 노력을 치하하며 아울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외적 경제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늘 하는 말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먼 미래를 대비했다는 어느 CEO의 말을 새겨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은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고 교육은 당장의 상황에 일희일비해서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학은 위기에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인품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소임에 충실해야 합니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훌륭한 인재로

길러내기 위한 교육에의 투자, 그리고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 개발을 독려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냄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대신 대학의 본령을 다하기 위한 연구, 교육, 특히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기에 때문에 숨죽이고 있기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우리대학의 미래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개신가족 여러분!

저의 재임 기간 동안 충북대학교는 대내외적으로 큰 잡음 없이 점진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국립대학 중에서는 최상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변모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의 전통과 앞으로의 발전적 미래를 볼 때 단 몇 년의 기간은 긴 기간이 아닙니다. 저는 그간 우리 충북대학교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욕심보다는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심정으로 근본을 충실히 하는데 진력해 왔습니다. 그간 구성원들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이 같은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구성원들의 협조와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9년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 다지기를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간 이룬 업적이나 성과에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큰 호수의 물도 새롭게 채우지 않고 흘러보내기만 한다면 어느새 바닥이 납니다. 대학 경쟁력의 핵심은 창의적인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전인미답의 황무지를 개척하는 도전정신으로 우리 대학의 잠재적 역량을 창의적으로 발휘한다면 대외적인 위기는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날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우리 모두 합심하여 충북대학교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기축년 한 해 동안 구성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충북대학교 총장 임 동 철

총동문회장 신년사



희망과 사랑, 그리고 행복을 실은 2009년 己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 한해도 경제침체의 여파로 몸과 마음이 힘든 해가 될 것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하고 우직한 소의 기운을 받아 우리 모두가 절망 속의 희망이란 의지를 갖고 힘차게 첫발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늘 어려움 속에서도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참여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문여러분! 모교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동철 총장님! 모교발전후원회장이신 홍재형국회의원님! 그리고 오제세 국회의원님! 또한 이 지역 교육계의 수장이신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는 개신 가족 모두에게 행운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새로운 전진을 다짐하는 모교와 동문회도 동심적 유대관계를 통하여 무궁토록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해를 맞이하여 동문회의 발전과 단합을 다짐하면서 두 가지 소망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째, 힘있는 동문회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10만여 동문 및 개신가족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제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동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배들의 자랑이며 거울인 동문지도자들은 확실한 자기 역할을 분담해야겠습니다. 세계 명문대학처럼 모교에 보내는 동문들의 지원이 우리 대학 발전의 원동력이 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同心(동심)의 동문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서로 도와주고 함께하는 동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음지에서 소리하면 양지에 화답하고, 뒤에서 손을 내면 앞에서 끌어주고, 형제애로 서로 호응한다면 우리의 뜻은 모아지고 동심의 동문회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문여러분!

마음을 함께하고 서로 참여하여 우리의 큰 소망을 이루어갑시다. 그리고 "동문회에 도움되는 일 한 가지는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합시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다짐이겠습니까? 시작은 언제 하여도 늦지 않으나, 내일로 미루는 것은 영원한 미결을 의미합니다. 君子志行으로 이어갑시다.

동문여러분! 200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뛰어 부자 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충북대학교 총동문회장 김 주 섭

동문회 소식

총동문회 행사

제54차 정기총회

‘제54차 총동문회 정기총회’가 3월 21일 용암동 매직프라자에서 김주섭 총동문회장과 임동철 총장을 비롯해 20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자랑스런동문에 대한 축하패와 공로패 전달 및 장학금 수여 그리고 2007년도 사업보고, 감사보고,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심의가 있었다. 임원 인준은 김주섭 총동문회장이 연임되어 26대회장으로 재취임했으며, 감사는 조완영(수학77), 성기정(법학83) 동문이 선출됐다.

- ▶ 공로패 수상동문 : 임창재(농학64), 신현옥(입학76), 김수갑(법학80), 장운식(식품82), 최현일(환경86)
- ▶ 축하패 수상동문 : 최한기(체육72), 이기동(경영79), 이형오(법학95), 이왕희(경영98), 권용우(경영99)
- ▶ 장학생 : 강병수(건축5), 김태운(노어4), 김창빈(사회4), 오진훈(특용4), 오세호(경영4), 남효주(체육4), 박양훈(체육4), 김경준(체육3), 강민구(체육3), 장미연(체육3), 김영립(체육2), 김상현(토목2)

제8회총동문골프대회

5월 28일 '제8회 총동문골프대회'가 청주그랜드C.C에서 임동철 총장과 김주섭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160여 개신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8시 30분부터 신페리오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며, 특히 남코스 4번째 홀에서 이흥구(건축78)동문이 홀인원을 하여 화제가 됐다. 경기결과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성명	학과및 학번	비고
매달리스트	김현택	토목공79	75
2위	김재중	대학원	78
3위	윤대식	산업대학원	79
신페리오우승	장덕수	농기계79	70
준우승	송재용	경영학81	70
3위	김종복	산업대학원	71
실버우승	신영철	농학63	71
준우승	연광석	농공64	73
3위	변진수	경영대학원	73
여성우승	박숙란	가정73	75
홀인원상	이흥구	건축78	남코스4번홀
장타상	임진혁	산업대학원	250m
근접상	이명철	경영대학원	1.9m
버디상	박완배	법학81	4
파상	하수용	토목73	10
보기상	황운서	경제82	14
최연장자상	이상패	경영대학원	80세
상투상	조성용	경영대학원	27세
행운상	최창현	농공88	107

2009총동문회 신년회



1월 9일 "2009년 충북대학교 총동문 신년회"가 용암동 매직프라자에서 김주섭총동문회장을 비롯한 20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류길영 사무처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동문 상호간 신년인사, 축하패 수여, 동문회장 신년인사, 모교 임동철 총장, 모교발전후원회장인 홍재형 국회의원, 오제세 국회의원,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 신년인사, 교가제창, 만찬 순으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이뤄졌다. 한편 지난 10월 28일 연기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유한식(축산69)동문,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류승진(법학01)동문, 제43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정종희(경영98), 신동한(경영99)동문에 대한 축하패 수여가 있었다.

보직교수 간담회

8월 14일 총동문회에서는 타이양에서 임동철 총장, 올 5월 이후 새로 부임한 보직교수에 대한 축하와 모교 발전에 관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 ▶ 참석자 현황
- 모교 ; 임동철 총장, 최대호 대학원장, 신호철 교무처장, 김향숙 학생처장, 조성찬 기획처장, 이승무 사무국장, 조태원 산학협력단장, 최석근 산학협력부단장, 임달호 입학실장, 이종대 대외협력실장
- 동문회 ; 김주섭 회장, 김태훈 수석부회장, 김현준 자문위원, 임상화 부회장, 송태영 부회장, 류길영 사무처장



산하동문회 소식

재경총동문회 창립총회

3월 14일 재경충북대총동문회 창립총회가 세종문화회관 별관 세종홀에서 모교 임동철 총장을 비롯한 30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는 김병찬(경영81)동문의 사회로 신종금(축산65)수석부회장의 경과보고, 조영호(입학65)회장 인사, 임동철 모교총장님의 축사 그리고 임원진 소개 및 사업계획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 행사는 만찬과 함께 우용제(체육71)동문의 사회로 각 대학별 소개 및 장기

자랑으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 ▶ 임원진 : 회장 조영호(입학65), 수석부회장 : 신종금(축산65), 김영의(토목70), 하수용(토목73), 자문위원 : 이원영(축산64), 변충구(약학66), 우용제(체육71), 김기분(축산74), 윤하용(영어78), 김병찬(경영81), 김치련(공법89), 감사 : 이성로(입학70), 음장복(공법89), 사무총장 : 김인식(연초72), 사무부총장 : 이강호(통계80), 이주연(법학81), 김경희(법학83), 총무이사 : 최우하(경영79), 조직이사 : 엽태근(중문84), 홍보이사 : 조성위(심리93), 재무이사 : 황성구(경영79), 여성이사 : 김수복(불문81)



충북대학교 재직동문회 하계야유회

7월 12일 충북대학교 재직동문회(회장 농화69, 홍순달)는 고군산열도의 선유도로 하계야유회



를 다녀왔다. 이번 야유회에는 동문 및 가족 1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동문 상호간 친목을 다지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 힘쓴 그동안의 피로를 해소하는 재충전의 시간이 됐다.

개신민우회 체육대회



6월 6일 모교 농대 잔디밭광장에서 제15회 개신사랑민주동우회(회장: 박명구-중문82) 체육대회가 300여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86학년 동문들이 주관하였으며, 피구, 줄달리기, 발야구 등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김승규(정의90)동문 사회로 가족과 함께 하는 다양한 게임과 장기자랑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011-487-5680)

한국농어촌공사 정기총회

7월 4일 한국농촌공사 제8차정기총회가 1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리호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퇴직동문(김허영;농학67, 백호현;농공68, 이병은;농공69), 승진동문(2급 김문규;재료79, 3급 정래영;토목80, 성기서;경영84, 이석주;토목90), 공인중개사 취득 동문(신홍섭;경영84, 류영선;행정86), 신입동문(송석채;토목96, 김태년;토목00, 김호영;토목00, 이진균;토목00, 연제현;토목01, 윤원상;경영04)에 대한 축하와 임원선출(회장 이경규;농공71, 부회장 김덕규;토목74, 민홍기;농공78, 총무 신홍섭;경영84)이 있었으며, 신입회장이 경규;농공71)의 인사와 만찬으로 진행되었다.

생활대 동문 모교 방문의 날

9월 26일 오후 6시 생활과학대학 합동강의실에서 '생활과학대학 동문 모교 방문의 날' 행사가 김향숙 학생처장, 권수애 학장, 류경순 생활대동문회장 및 동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제1부에서는 동문환영식(류경순 회장 인사, 권수애학장 환영사, 김향숙 처장 축사, 자랑스런동문 시상, 발전기금 전달 등)이 있었으며, 제2부에서는 선후배 화합한마당 및 만찬 행사가 펼쳐졌다.

바이오시스템공학과(전 농기계 공학과) 30주년 기념행사

9월 27일 농업생명환경대학 "바이오시스템공학과 30주년 기념행사"가 오후 6시 농대 중앙잔디밭에서 김주섭 총동문회장, 석영선 학장, 학과 교수 및 동문 동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제1부 기념행사는 장덕수(79. 충북소주(주) 대표이사)회장 인사, 공로패 및 장학금 수여, 축사가 있었으며, 제2부 행사는 다채로운 공연과 만찬이 있었다.



토목공학과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12월 6일 '토목공학과 동문회 제31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행사가 개신문화관1층에서 20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1부 행사는 사무국장인 안광국(85)동문의 개회선언과 송석철(74)동문회장의 인사, 2008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그리고 동문회 임원인준(회장 이명원76)이 있었고, 제2부에서는 축하패 및 공로패 수여식과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 ▷ 공로패
 - 송석철(74): 토목공학과동문회장
 - 안상로(76): (사)토질 및 기초기술사 회장
 - 신영섭(92): 체육대회 주관회장
 - 이용규(92): 체육대회 주관총무
- ▷ 기술사취득 동문 : 강성우(82), 김문식(82), 이종준(82), 오덕근(84), 강운석(85), 김성석(85), 반상구(86), 김차유(86), 임일혁(87), 최재용(90), 김필도(95)
- ▷ 박사학위 취득동문 : 김영진(79), 박기석(89), 임광섭(91), 이동주(02), 이계동(03)
- ▷ 교수임용 동문 : 백중철(86) 강릉대학교 토목공학과



가정학과동문회 정기총회

1월 6일 봉명동 파비농에서 제18차 가정학과총동문회가 류경순(71)회장을 비롯한 50여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그리고 임원선출이 있었으며, 신입회장으로 이용순(72. 감물중학교장)동문이 선출되었다.(☎016-412-3494)

동문동정

▶ 유명호(약학60)동문 '숲을 사랑하는 군수님' 선정
6월 17일 증평군수인 유명호동문이 경기도 포천 광릉 국립수목에서 '미래를 위한 숲-기후 변화와 지역발전'을 주제로 열린 제8회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에서 '숲을 사랑하는 군수님'으로 선정돼 하영제 산림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835-3002)

▶ 곽정수(농공63)동문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장
8월 22일 충청북도 교육위원인 곽정수동문이 금년 9월 1일~2010년 8월 31일까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제5대회장에 선출되었다.(☎290-2704)

▶ 정상길(농화64)동문 '시인' 등단
주성대학학장인 정상길동문이 12월 문학지 신인상 시 부문에서 '우울한 코스모스'등 3편이 당선돼 시인으로 등단됐다. 정동문은 1969년 농화학

과 졸업후 농촌진흥원 연구원 중고교 영어교사 치과 의사 건설회사 회장 대학학장 등 다채로운 이력과 경력에 이제는 시인까지 되어 화제다.(☎011-9841-5811)



▶ 유한식(축산69)동문 연기군수 당선
10월 29일 충남 연기군수 보궐선거에서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한 유한식동문이 연기군수로 당선되었다.(☎041)861-2201)



▶ 허 열(토목70)동문 모교 건설기술 연구소장
3월 2일 모교 토목공학과 교수인 허 열동문이 건설기술연구소장에 취임했다.(☎261-2943)



▶ 김광렬(화공기)동문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3월 2일 모교 환경공학과 교수이며 교수협의회회장인 김광렬동문이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에 취임했다.(☎011-462-7956)

▶ 사희철(약학71)동문 국제로타리 3730지구 총재
7월 1일 원주 웨딩타운 컨벤션홀에서 국제로타리3730지구(강원도) 총재로 취임하였다. 사동문은 강원도 원주에서 바다약국을 경영하면서 1984년 로타리클럽에 입회 1987~88회기 원주중앙로타리클럽회장, 1998~99회기 제1지역총재보좌역을 역임하였으며, 강원지역 약학대학동문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011-378-4274)



▶ 민경범(농학72)동문 충북농업기술원장
1월 2일 민경범동문이 제24대 충북농업기술원장에 취임하였다.(☎220-8300)



▶ 변근원(농공72)동문 충북일보 대표이사
6월 22일 변근원동문이 충북일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변동문은 그동안 충청리뷰 대표이사를 맡았었다.(☎011-466-5165)



▶ 최한기(체육72)동문 충북교총회장
1월 3일 주성중학교장인 최한기동문이 제33대 충청북도교원연합회장으로 취임하였다.(☎011-484-9517)

▶ 문상욱(수학72)동문 충북예총 회장
1월 30일 충북예총선거에서 문상욱동문이 제21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문동문은 청주예총부회장, 충북사진대전 초대작가, 한국사진작가협회회원, ABI(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고문을 역임했고, 작가로서는 개인전 2회, 국제미술제 초대전 7회, 국제교류전 4회, 그룹전 120여회의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 미원공고에 재직중이다.(☎010-6490-7394)



▶ 신현욱(임학76)동문 지방청 생활안 전과장
3월 23일 보은경찰서장인 신현욱동문이 충청북도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체육학과동문회 정기총회 및 체육인의 밤

11월 22일(토) '체육학과동문회 정기총회 및 체육인의 밤' 행사가 선프라자에서 200여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오후5시 정기총회(회장 김병동에서 2008년도 결산 및 사업보고가 있었고, 임원선출에서 김기표(68. 영동고 교장)동문이 선출되었으며, 이후 80학번(회장 연관규, 총무 최계형)이 주관한 체육인의 밤행사에는 선·후배간 화기애애한 가운데 만찬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총동문회 김주섭회장이 참석하여 자리가 더욱 빛났다.

산림과학부동문회 정기총회

11월 8일(토) 농업생명환경대학 '산림과학부동문회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가 농대 중앙잔디밭 광장에서 100여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총회에서 박재인(70. 모교산림과학부 교수)동문이 신입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체육대회는 선후배간 축구, 줄달리기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다.



으로 부임하였다.
(☎011-380-0759)

▶ 안상로(토목76)동문 (사)한국토질 및 기초기술사회장

10월 16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사)한국토질 및 기초기술사회의 정기총회에서 안상로(한국시설안전공단 기술사업단장)동문이 2년 임기인 회장에 선출되었다.
(☎010-3728-0674)

▶ 나명찬(행정77)동문 기업은행 고객만족부장

1월 16일 청주기업은행 지점장인 나명찬동문이 본사 고객만족부장으로 영전되었다.
(☎011-9757-5764)

▶ 박경국(농경77)동문 청와대 국장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였던 박경국동문이 2월 청와대 국제경제강화위원회 지역경제활성화국장으로 부임되었다.
(☎010-7283-3388)

▶ 이종길(약학77)동문 모교 약학대학장

3월 2일 모교 제약학과 교수인 이종길동문이 약학대학장에 취임했다.
(☎011-498-2826)

▶ 김성명(역사78)동문 청주박물관장

11월 7일 김성명 동문이 국립청주박물관장에 부임했다.
(☎016-445-5026)

▶ 김정희(미술78)동문 청주시미술협회장

2월 21일 청주시 미술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재임됐다. 김동문은 공약으로 △올해의 작가상 제정 △우리동네 200개 미술관 둘러보기 발간 △월별 미술품 경매 △활발한 미술메세나 운동 전개 등을 제시했다. 김동문은 13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미술학과 동문회장도 맡고 있다.
(☎016-408-2177)

▶ 윤현동(경제79)동문 신세계백화점 부사장

12월 1일 신세계백화점 재무담당 상무이사인 윤현동동문이 부사장으로 승진되었다.
(☎011-725-0588)

▶ 최현섭(약학79)동문 국제로타리 3740지구 총재보좌역

7월 1일 영운동에서 부부약국을 경영하는 최현섭동문이 2008-9회기 국제로타리3740지구 10지역 총재보좌역에 취임하였다.
(☎259-4621)

▶ 함우석(불문80)동문 충북일보 편집국장

8월 12일 함우석동문이 충북일보 편집국장으로 취임하였다.
(☎011-463-5893)

▶ 홍강희(독문80)동문 충청리뷰 편집국장

11월 1일 홍강희 동문이 충청리뷰 편집국장으로 취임하였다.
(☎018-400-2987)



▶ 김상구(영문80)동문 청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장

3월 2일 김상구동문이 충남 홍성군 청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에 취임했다.
(☎011-9844-3260)



▶ 조봉제(경제80)동문 신한은행 터미널지점장

1월 2일 조봉제동문이 가평동 신한은행 터미널지점장에 부임했다.
(☎011-9123-0046)

▶ 최병윤(건축80)동문 음성문화원장

2월 24일 최병윤동문이 음성문화원장에 취임하였다. 최동문은 (주)석진산업 경영하고 있으며, 2005년 음성향토문화 예술단 창단 회장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는 음성문화원 부원장을 역임하였다.
(☎010-5461-2949)



▶ 장석우(농공81)동문 포병여단장

ROTC 23기인 장석우동문이 제11기계화보병사단 포병여단장에 부임하였다.
(☎010-5072-7073)



▶ 유희재(토목81)동문 무심로타리클럽 회장

7월 1일 기아자동차 흥덕영업소장인 유희재동문이 청주무심로타리클럽 회장에 취임하였다.
(☎011-462-9139)



▶ 이동섭(국문81)동문 보은경찰서장 승진

충청북도 경찰청 이동섭동문이 3월 23일 보은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011-491-0116)



▶ 최현호(법학81)동문 모교 기성회장

8월 19일 모교 기성회장 이사회에서 최현호동문이 회장에 선출되었다.
(☎011-459-7770)



▶ 장윤식(식품공82)동문 충북인쇄조합 이사장

2월 20일 충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제47차 정기총회에서 장윤식동문이 만장일치로 제24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장동문은 현재 (주)중부출판사를 경영하고 있다.
(☎011-461-5474)



▶ 김홍구(경제82)동문 청주시 청소년수련관장

주성대학 부동산학과 교수인 김홍구동문이 청주시 청소년수련관장이 부임하였다.
(☎261-0700)

▶ 박연수(사회83)동문 희말리아 직지봉 정상 정복

모교 산악부 출신인 박연수동문(직지원정대 대장)이 희말리아 차라쿠사지역 무명동(6,300m)을 세계 최초로 등정하여 그 이름을 '직지봉'으로 명명하고자 5월 30일 출발하여 6월 18일 성공적으로 정상을 정복했다.
(☎011-9840-8848)



▶ 이범석(행정85)동문 옥천부군수

2월 1일 이범석동문이 옥천부군수로 취임하였다.
(T.011-482-5731)



▶ 최현일(환경86)동문 포스코건설 중부지사장

본회 부회장인 최현일동문이 3월 1일자로 승진 포스코건설 중부지사장에 취임하였다.
(☎010-3613-2153)

▶ 김빛나(심리95)동문 인디애나대학 교수

8월 1일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김빛나동문이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범죄학과 조교수로 임용됐다. 김동문은 1999년 2월 졸업후 2001년 8월 대학원(상담심리학 전공)을 거쳐 2003년부터 현재까지 샘 휴스턴 주립대학에서 박사과정(범죄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곧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1875년 설립된 인디애나대학교는 6개대학과 대학원에 현재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1만 3천여명의 학생과 700여명의 교수가 있으며, 범죄학과는 가장 인기가 높은 학과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 박석순(행원고)동문 범방위 청주협의회장

12월 19일 청주지검 범죄예방위원 청주지역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 추대로 박석순(진명건설 회장)동문이 7대회장으로 재선임됐다.
(☎011-9844-4588)

▶ 장 수(대학원)동문 연변대학 이학원장

자연대학 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장 수 동문이 연변대학교 이학원장에 취임하였다. 연변대학교는 장 수동문외에 현재 13명의 동문이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86-433-2736522)

※ 연변대학교 동문교수

성명	학과	근무처
장 수	물리학	이학원장
강 병 식	물리학	이학원 물리학과
이 미 자	임상학	내분비과
윤 수 욱	약 학	약학원 약제학 교연실
유 태 순	법 학	법학원 부원장
현 연 화	병리학	기초의학원 병리학 교연실
이 영 진	컴퓨터	공학원 컴퓨터학과
차 성 일	임 상	연변대학병원 심장외과
전 승 과	물리학	사범분원 교무처 부처장
염 미 란	원예학	농학원 원예학과
박 현 춘	원예학	농학원 원예학과 학과장
오 영 철	원예학	농학원 원예학과
마 천 택	임 상	연변대학병원 혈액과

수 상

▶ 김홍은(임학61)동문 제13회 충북문학상

8월 30일 충북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제13회 총회에서 김홍은동문이 충북문학상을 수상했다.
(☎262-1789)



▶ 이희숙(가정75)동문 근정포장



모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소비자학과 교수인 이희숙동문이 1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제13회 소비자의 날' 행사에서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이동문은 소비자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은 물론 한국소비자학회장을 비롯하여, 소비자정책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자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소비자 정책의 발전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공로가 인정되어 근정포장을 수상하게 됐다.(☎261-3148)

▶ 나명찬(행정77)동문 충북도지사상



5월 27일 기업은행 지점장인 나명찬동문이 경제특별도 선정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15조원 달성 유공 기관장으로 선정되어 충청북도 정우택지사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였다.(☎011-9757-5764)

▶ 장덕수(농기79)동문 복지장관상



6월 27일 (주)충북소주 대표이사인 장덕수동문이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관한 '희망 2008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011-461-4676)

▶ 윤철한(전기계산공82)동문 서예정람회 우수상



8월 20일 제16회 대한민국서예정람회 한문 초서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윤동문은 현대Clover하이테크(주)에 근무하고 있으며, 모교 입학 후 '서도회'동아리에서 서예를 시작하여 추산 오신탱(국어72)동문에게 사사 받고 있다.(☎010-5144-5218)

개업



▶ 박재훈(농학75)동문법무사 사무실 이전
청주지방법원 이전으로 박재훈법무사 사무실을 산남동 금성자동차학원 뒤편으로 이전 개업하였다.(☎284-0600)



▶ 이상범(행정77)동문 (주)씨알 푸드
7월 30일 제천시 왕암동 제천바이오밸리에 패스트푸드 전문회사인 (주)씨알 푸드 공장을 준공하였다.(☎011-9019-8061)



▶ 김우성(법학81)동문 변호사 사무실 이전
7월 1일 변호사인 김우성동문이 사무실을 산남동657 엔젤변호사빌딩 604호실로 이전하였다.(☎286-2096)



▶ 성기정(법학83)동문 노무사 사무실 이전
본회 감사인 성기정동문이 노무사 사무실을 미평동35-17 이전 개업하였다.(☎236-8822)



▶ 황동민(안전87)동문 웰커뮤니케이션/미래주류
기획전문회사 '웰커뮤니케이션'을 운영하던 황동민동문이 1월 19일 (주)충북소주의 천연 100년근 배양

산삼주 '휘' 충북총판인 '미래주류'를 개업하여 사업을 확장하였다.(☎070-8202-7211)



▶ 조성훈(법학90)동문 법무법인 '청주로'
3월 3일 변호사인 조성훈동문이 산남동 신법원앞에 법무법인 '청주로'를 개업하였다.(☎285-4142)

출간

▶ 도종환(국어73)동문 '누가 더 놀랐을까'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시인 도종환동문이 첫동시집 '누가 더 놀랐을까'를 펴냈다. 이번 동시집은 제1부 '채송화는 작은 꽃', 제2부 '병아리 싸움', 제3부 '도라지꽃밭', 제4부 '아기 울음소리'로 나뉘지며, 농촌 아이들의 일상을 작가 특유의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졌다.(☎010-9965-0354)

▶ 김진식(국어74)동문 '청원군 지명 유래'



12월 29일 모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인 김진식동문이 '청원군 지명 유래'를 출간했다. 청원군은 현재 2읍 12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큰 군으로 오랫동안 현지 조사를 거쳐 지명 자료를 수집하여 출간하게 됐다.(☎261-2664)

▶ 정효구(국어77)동문 '마당 이야기'



모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인 정효구 동문이 '마당 이야기'에세이집을 출간했다. 마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장면들을 소재로 '마당을 쓸다', '마당에 빨래를 널다', '마당 위로 잡자리가 날다'처럼 마당에서 우리가 직접 겪는 소소하고 사사롭게 보이는 일상들의 이야기가 많다.(☎261-2101)

▶ 정문섭(무역79)동문 '우연한 성공은 없다'



중부매일신문 부국장인 정문섭 동문이 '우연한 성공은 없다'를 출간하였다. 정동문은 21세기를 이끈 우리시대 리더들의 이야기 3권을 출간하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꿈꾼다. 그러나 남모르는 고통과 피눈물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성공이라는 값진 열매를 수확해 낼 순 없다. 미래는 준비한 자에게 다가오듯, 성공 또한 우연히 다가오는 법은 없다고 갈파했다.(☎011-464-5001)

미담

▶ 권광택(경정00)동문 의정비 전액 기부



충청북도의원인 권광택동문이 매달 받는 의정비를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전액 기부하고 있다. 2010년 6월까지 기금총액은 약 1억원으로 충북의 인재양성과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약정하였다고 하여 화제다. 권동문은 그 동안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충북)지구 총재, 청주시 서부종합복지관 후원회장, (사)한국청소년연합 청주시지회장, (사)한경실천연합회 충북본부 고문 등 지역사회발전에 솔선수범하고 봉사하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010-2443-0364)

인사

중등학교 교장·장학(교육연구)관 인사

- ▶ 전보·전직
 - 신우인(수학70): 청주교육청 교육장
 - 홍순규(수학71): 학교정책과 과장
 - 강상무(영어71): 중등교육과 장학관
 - 석명기(국어72): 청원교육청 장학관

▶ 교장 승진

- 조태평(수학70): 영춘중
- 이기호(수학72): 수산중
- 이철수(미술75): 봉양중
- 김기탁(국어76): 괴산고

▶ 교장 전보·전직

- 박종관(과학71): 오송중
- 오도균(과학71): 각리중
- 조성준(수학71): 옥천고
- 변덕수(수학72): 현도중
- 김경배(영어74): 송절중
- 김갑숙(영어73): DYDANS중
- 이호진(과학74): 단성중

▶ 교장 초빙

- 김종신(수학74): 보은중
- 김동욱(국어74): 예성여고
- 신경인(공업74): 반도체고

교감·장학사 인사

▶ 승진

- 이근하(국어75): 주덕고
- 이원숙(가정77): 보덕중

▶ 전보·전직

- 박용수(수학70)제천중
- 이기원(수학70)음성고
- 정문희(농화70)대소중
- 최갑주(영어71)울랑중
- 김대연(수학72)철금중
- 양창목(수학72)오송중
- 윤연옥(과학72)용성중
- 윤태근(과학72)증평중
- 조병태(국어72)송학중
- 전원태(체육73)청주동중
- 이용희(영어74)황간고
- 이종호(과학74)부강중
- 유복현(체육74)내수중
- 박윤재(국어75)제천고
- 엄경숙(수학76)청여중
- 안태영(국어77)내토중
- 윤인중(수학80)남성중
- 정태호(영어73)옥천교육청
- 남기천(국어74)중등교육과
- 유승자(영어75)단체교육원
- 최정대(영어75)청원교육청
- 이재숙(사회77)보은교육청
- 임명은(가정77)청주교육청
- 김기선(수학80)중등교육과
- 손기준(지리80)중등교육과

▶ 전출입 및 파견 복귀

- 정호경(영어71)옥산중
- 박찬응(국어73)충북대부설중
- 정광모(가정75)미호중
- 송영광(과학81)단체교육원
- 정구영(영문81)교원대학
- 홍석중(과학83)중등교육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aw School) 개원 경과보고

- ◎ Y.S 정부시절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정부차원에서 추진
 -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물적시설 준비
 - 1995. 10. 1. 전산정보실 개관
 - 1996. 5. 20. 법학도서관 개관
- ◎ D.J 정부시절 새교육공동체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도입 추진
- ◎ 충북대학교 제5차 종합발전계획
 - 2003.8. 법학전문대학원설립을 중장기 발전과제로 명시
- ◎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추진위원회1
 - 2004.11. 법과대학 교수로 실무추진위원회구성
 - 2004.11.15. 충북대학교 학장회의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계획 보고
- ◎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 작업 추진
 - 2006.8. 신법학관 완공, 법학도서관, 모의법정 등 기반시설 강화
 - 2007.8. 25인 교수 확보
 - 2007.9. 장학기금 3억원 조성, 총동문회, 동문기업 대외장학금(13인) 확보
- ◎ 충청북도로스쿨유치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정종택 충청대학 총장)
-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2007.7. 대학내 대표보직자로 구성(위원장 : 임동철 충북대 총장)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 운영 지침을 제정
 - 설립예산편성 및 집행, 설립준비관련업무의 심의
- ◎ 로스쿨 공개토론회
 - 2007.10.10. 지역사회 대표, 교수, 학생, 시민 등의 참여

- 교육목표, 로스쿨의 발전방향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
- 도 로스쿨 유치위원장, 충북도 국회의원 3인, 총동문회장 참여 및 격려
- ◎ 충북대학교 인가신청서 심의 및 신청서 제출
 - 2007.11.28.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 인가신청서(안) 심의
 - 2007.11.30. 설립인가신청서 제출
-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현지조사 실시
 - 2008.8.18.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대학이행 실적 점검 및 현지조사
-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인가
 - 2008. 9. 1 입학정원 70명 확정
-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 2008.10.6~10.10 신입생 원서접수
 - 2008.11.6 1단계 합격자 발표 287명 지원 204명 합격
 - 2008.12.5 최종합격자 발표 70명
- ◎ 합격자 등록
 - 2009.1.5~1.7 정시등록, 2009.1.12~1.14 1차 추가등록,
 - 2009.1.19.~1.20 2차 추가등록, 2009.1.28최종등록 70명 완료
-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선행학습
 - 2009.1.19~2.20 48명 참여
-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2009.2.24~2.25 35명 참여
-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식 및 입학식
 - 2009. 3. 3.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식 및 신입생 입학식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이 3월 3일 새로운 법학 교육이 시작되는 날을 기념하고 그 열매의 풍성함을 기약하기 위한 개원식 및 신입생 입학식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유치의 상징성과 파급효과로 인해 대학간 경쟁이 유례없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민의 전폭적인 지원과 염원, 대학구성원들의 합심의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할 수 있었다.

2008년 9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최종인가 승인을 받은 후 2008년 10월 입학원서 접수를 시작해 LEET 성적, 학부성적, 영어성적을 통해 1단계 합격자를 발표, 이 중에서 심층면접

을 통해 최종 합격자 70명을 선발해 이번에 첫 신입생 입학식을 갖게 됐다.

우리 대학은 보다 우수한 법조 인력을 양성·배출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장학재원 확보와 특성화 분야로 과학기술법을 선정하고 ???때진할 것이다.



김장근 학생 우수인재상 수상

전전컴부 전자공학과 4학년인 김장근 학생이 지난 1월 2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선정하는 '제7회 21세기를 이끄는 우수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장근 학생은 지난 2005년 '라이트레이서' 라운 마이크로 로봇경진대회를 시작으로 2006년 충남대에서 주최한 '지능형 창작로봇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 2007년 KAIST에서 주최한 '2007 지능형 SOC로봇 경연대회' 태권로봇 부분에서 우승하는 등 로봇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해 10월에는 2006년도 수상한 작품을 수정·보완해 한국 지능형 로봇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번의 수상에도 자만하지 않고 로봇에 대한 열정으로 끊임없이 노력해 2007년 11월 ALTERA사에서 주최한 국제대회 'Embedded Processor Design Contest'에서 2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김장근 학생은 "대학 2학년 때 로봇동아리에 가입하면서 로봇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로봇분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1세기 우수 인재상'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육성이 요구됨에 따라 우수인재 양성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정한 상이다. 올해에는 고등학생 40명, 대학생 40명 등 총 80명이 선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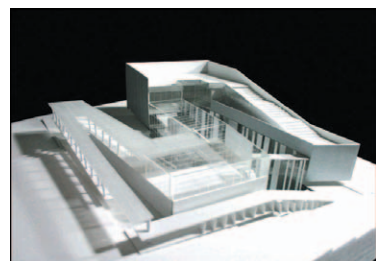


건축학과 박성혜 대학건축학회에서 대상 수상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가 지난 10월 7일 주관한 「2008 대한건축학회 학생작품 공모전」에서 공과대학 건축학과 박성혜(지도교수 이강훈)학생이 대상인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공모전은 전국 100여 대학의 건축학과 학생들이 건축설계 디자인 실력을 겨루는 전국규모의 매우 큰 대회로 건축학과 김경표 교수도 특별상(남과 박학제상)을 수상하여 우리대학의 위상과 명예를 한층 드높였다.

건축학과에서는 이 외에도 대학건축학회 주관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김광준, 박성혜, 심경숙), <도쿄모모 코리아> 입선(정인섭, 오윤경) 및 <충청북도미술대전> 특선(김정현, 이지현, 노광훈, 김진우, 한인호, 장진영, 권지훈, 구인회, 오예슬) 등 건축계의 다양한 대회에서 매년 실적을 올리고 있다.



전전컴 로봇 동아리 '지능형 SoC 로봇위' 대회 석권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전기공학 소속 동아리 NERD(지도교수 김시호)가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열린 '지능형 SoC 로봇위 2008' 대회에서 "FPGA는 뭐가효(이현주 03 외 3명)"팀으로 출전해 태권로봇 종목에서 우승했다. 이어 "코코팜 white(정석철 02 외 2명)"팀으로 출전한 동아리 더블클릭(지도교수 박태형)도 준우승을 하여 각각 지식경제부 장관상과 KAIST 총장상을 받았다.



태권로봇 종목은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상대로봇의 위치, 거리 및 움직임을 파악하여 외부의 리모트 컨트롤 없이 스스로 공격과 방어를 하며 승패를 결정짓는다.

또한 탱크로봇 종목에서는 "FPGA는 뭐가효"팀이 태권로봇 종목 우승에 이어 3위를 차지하여 KAIST

총장상과 함께 540달러의 상금과 상품을 받았다. 이 종목은 로봇의 영상인식, 무선통신, 음성인식 등이 용한 다양한 인식 알고리즘과 주행 알고리즘이 결합된 형태의 지능로봇 경기이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KAIST 시스템설계응용 연구센터(SDIA)가 주관하며 알테라 코리아가 공식 후원한 '지능형 SoC 로봇위 2008'은 전국 대학(원)생 대상의 대회로 올해로 7회를 맞이했으며, 이번 대회 예선에는 150개 팀이 출전 열띤 경쟁을 거쳐 탱크로봇 20팀, 태권로봇 10팀이 본선에 진출했는데, 특히 우리대학은 출전 팀 모두 수상하는 실적을 이루었다.

수의사 및 의사 국가시험 각각 100% 합격

우리대학 학생들이 수의사 국가시험 및 의사 국가시험에서 각각 100% 전원 합격해 대학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였다.

수의과대학(학장 허강준) 학생 39명이 지난 1월 11일에 실시된 "제52회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전원 합격해 7년 연속 100% 합격이라는 진기록을 남겼다. 또 의과대학(학장 최재운) 2008년 졸업예정자 66명도 지난 1월 9일과 10일 양일간 실시된 "제72회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수의과대 및 의과대는 그동안 국가고시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해 국가시험 전용 정독실을 마련해 기출문제 심층 분석 및 예상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는 등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해왔다.



종합대학교 30주년 기념식

우리대학은 3월 31일(월) 오후 2시 본부 3층 대강연실에서 '도전과 변화'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개교 57주년 종합대학교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범모 초대총장을 비롯한 전임 총장 4명과, 김주섭 총동문회장, 독자가 신언임 여사와 명예교수 35명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개교 57주년 및 종합대학교 승격 30주년을 기념하고, 개신가족 결속을 통한 학교에 대한 자긍심 및 애교심 고취, 지속적 대학발전을 위한 구성원의 결의를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충북바이오축제 개막



개신문화관에서 개최했다.

바이오축제는 초·중·고 및 대학생, 일반인들에게 바이오분야를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학생들의 연구과제와 각종 경진대회

작품발표 및 사업단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개최됐다.

BT산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도 참여한 이번 축제는 도내 BT관련 기관의 사업내용 및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충북도의 바이오토피아 정책과 비전을 널리 알리는 뜻 깊은 자리였다.

주요행사로는 송태영 동문(행정79)의 "이명박 정부의 시대정신"이란 특별강연과 사이언스 매직쇼 어머니 과학교실/바이오사랑도민모임 대학생/고교생 작품발표 기업체/연구소/사업단의 전시회 DNA 목걸이 만들기 바이러스 모델 만들기 등이 있었다.

주)로만손 장학금 1억원 기탁 및 시계탑 건립 약정

임동철 총장은 지난 3월 25일 (주)로만손 빌딩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주)로만손 충북대학교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해 김기문 회장으로 부터 장학금 1억 원을 기탁 받고, 학내에 시계탑(1억 원 상당)을 건립해 줄 것을 약정 받았다.

김기문 회장은 중부권의 거점대학인 우리대학에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이번에 장학금을 기탁했으며 약정한 시계탑은 우리대학을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이 결정되는 대로 개신문화관 벽면이나 앞에 건립될 예정이다.

김기문 회장은 충북 증평군 도인면이 고향이며 1988년 주식회사 '로만손'을 창업해 건설한 중견기업으로 키워왔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중소기업의 위상 및 역할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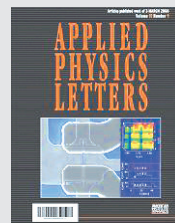


나노기술연구소 "초저소비전력 반도체 회로기술" 세계 최초 개발

나노기술연구소(소장 최중범)가 컴퓨터 및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의 중앙연산처리장치(CPU) 소비전력을 회로 자체 내에서 수십 배 이상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초저소비전력 테라비트급 비메모리 반도체 논리회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또한 이 기술은 미국물리학회(AIP)가 발행하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어플라이드 피직스 레터스(Applied Physics Letters)" 3월호 표지논문으로 게재되었으며 동시에 영국의 네이처(Nature) 나노테크놀로지의 리서치하이라이트에 '주목받는 연구'로 3월 20일자 온라인 속보로 소개돼 화제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프론티어 21 / 테라급나노소재개발사업의 지원 하에 수행된 이 연구는 '전자 한 개로 논리신호를 처리하는 변환 가능한 다중치 단전자회로기술'로써 그동안 IEEE, SSDM 등 미국과 유럽 및 일본의 나노소재 관련 저명 국제학술대회에서 연이어 발표되는 등 주목을 받아왔다.

한편 최 교수팀은 단전자 낸드(NAND)/노어(NOR) 회로 개발에 이어 최근 또 하나의 핵심 논리 회로인 XOR 다중치 로직 게이트 회로 개발에도 최초로 성공하여 현재 이들을 결합한 최소 연산자인 초저전력 단일전자 반가산기(Half-Adder) 개발을 수행중이라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본 기술을 포함한 초저소비전력 단전자 나노회로기술과 관련 국내특허 16건 및 국제특허(PCI) 3건을 출원했다.



충북대 진천 천문관 개관

우리대학 진천천문대(천문대장 이용삼) 개관식이 4월 17일 오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에서 개최됐다.

이번 개관식은 우리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천문 우주관측 시설을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공개하여 천문우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10여 년에 걸쳐 준비해왔다.

이곳에서는 천문우주과학에 관한 교육 및 연구, 우주 관측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와 기타 천문대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관측시설 중 직경 1m RC형 망원경은 국내 대학이 보유한 것 중 구경이 최대로서, 지상에서 약 450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축구공을 식별할 수 있고, 사람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별보다 약 2만 배 어두운 별까지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 1m 망원경은 완전 자동화시스템으로 원격 자동관측을 할 수 있다.

또한 돔은 직경 9m의 반구형으로, 셔터는 차등개폐 방식으로 효율적인 방풍(防風)과 방광(防光)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16개로 분할하여 제작했으며 이 시스템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기술로서 향후 국내 돔 제작 시장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돔 셔터의 개폐 시간은 10초 내외로 최소화 하여 갑작스런 경우 등의 위급상황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첨단 관측시설을 이용하여 쌍성의 연구뿐만 아니라 관측기기 개발 등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우리대학 천문우주학과 대학원에 개설된 “대중 천문교육” 과정의 학생들과 함께 천문대시설을 이용한 천문우주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향후 국공립 천문대뿐만 아니라 사설천문대에서 일할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수련시설과 연계한 천문우주 체험캠프, 초·중·고학생들을 위한 일일 체험 학습프로그램 그리고 계절별로 공개관측회 등을 기획하여 천문우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18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과학의 날을 기념하고 진천 천문대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망원경 시연 및 강연 그리고 천체관측을 하는 공개 행사도 펼쳐졌다.

시각디자인전공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전서 전원 수상

미술과 시각디자인전공(지도교수 김재홍, 심복섭) 4학년 재학생으로 구성된 6개 팀(총 10명)이 지난 4월 22일 서울국제디자인플라자(SIDP)에서 거행된 “제3회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에서 전원 입상하는 실적을 이루었다.

강남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수도권 대학특성화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번 공모전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대만 등 디자인 강국 새내기들의 작품 355점이 경합을 벌여 얻은 결과로 우리학생들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수상내역

- 국제특별상 / 일본 니카회디자인부 대표상 / 시각 및 패키지 디자인 부문 - 강수정(건전지 패키지디자인)
- 국제특별상 / 대만 국립타이난대학 총장상 / 시각 및 패키지 디자인 부문 - 이민원(화투디자인 개선)
- 은상 / 시각 및 패키지 디자인 부문 - 김미진, 권소영(공공요금 고지서 디자인 제안)
- 특선 / 시각 및 패키지 디자인 부문 - 반경남, 박주희(실버캘린더 디자인)
- 특선 / 시각 및 패키지 디자인 부문 - 변다영글, 최소영(지하철역 관광안내 편집디자인)
- 입선 / 시각 및 패키지 디자인 부문 - 김항미, 박슬아(제철식품 건강달력 디자인)

시각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람회서 대거 입상

미술과 시각디자인전공(지도교수 김재홍, 심복섭) 3, 4학년 재학생들이 지난 6월 5일 서울 성남에 위치한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에서 거행된 '제43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에서 대거 입상했다.

산업디자인전은 1966년에 처음 개최하여 올해로 43년째를 맞았으며, 삼성, LG 등에 소속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공모전이다. 또한, 디자인분야의 국전이라 불리는 산업디자인전에 대학생 자격으로 참가하여 기성 디자이너와의 경쟁에서 얻은 이번 결과는 우리학생들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대학의 시각디자인전공은 2002년에 개설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수의 대회입상 및 취업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미술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수상내역

- 특 선 / 시각디자인부문 / 박슬아, 김항미 / 테이스터초이스-커피향 가득한 캘린더
- 특 선 / 시각디자인부문 / 반경남, 강수정 / 100주년 컨버스 포스터
- 특 선 / 시각디자인부문 / 안준석, 배용호 / 수화폰트 디자인
- 입 선 / 시각디자인부문 / 강수정, 권소영 / 가이농장-키위
- 입 선 / 시각디자인부문 / 김미진, 이민원 / 제9회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
- 입 선 / 시각디자인부문 / 박주희, 강수정 / Nintendo wii-움직이는 즐거움 위!
- 입 선 / 시각디자인부문 / 신민정, 양은정 / 그린피스 포스터
- 입 선 / 시각디자인부문 / 유지혜, 정혜운 / 펜텔수정테이프-시원하게 지운다

교육공무원 보직임명

우리대학은 2008년 7월 25일(금)자로 보직교수 인사를 단행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오전 10시에 본부 5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인사에서 신호철 교수(사범대학 역사교육과)가 교무처장, 임달호 교수(경영대학 국제경영학과)가 학생처 입학관리실장, 이종대 교수(공과대학 화학공학부)가 기획처 대외협력실장, 최석근 교수(공과대학 토목공학부)가 산학협력단 부단장에 임명됐다.



교무처장
신호철 교수



학생부처장
임달호 교수



기획부처장
이종대 교수



산학협력단 부단장
최석근 교수



대학원장
연광석 교수
(2009. 3. 1일자)

김용민 선수 주니어레슬링 한국대표 출전



체육학과 김용민(2학년) 선수가 오는 7월 터키에서 열리는 “2008 세계 주니어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다.

김용민 선수는 5월 11일 강원도 동해시에서 열린 “2008년 세계 주니어레슬링 선수권 과전 선발대회”그레코로마형 120kg급 결승에서 라이벌인 김현규(경남대)를 2:0으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 세계대회 출전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는 2002년 우리대학에서 발 알 선수가 주니어 대표로 선발된 이후 6년 만에 따낸 주니어국가대표 출전권이다.

김 선수는 지난 해 본교로 진학하여 한 체급을 올린 120kg급에서도 출전하여 아시아주니어 선수권대회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대학부 정상의 실력으로 각종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우리대학 레슬링 관계자에 따르면 김 선수는 근력과 순발력이 뛰어나고 기초가 탄탄하여 한국레슬링을 이끌어갈 재목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MOU체결

임동철 총장은 6월 9일 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한국 정보문화진흥원(원장 손연기)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학술자문, 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 개최를 통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를 목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주요내용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인력(교육 및 인턴사원, 학점제 등) 교류 국제협력분야(개도국 정보화 사업) 상호 협력 추진 지자체 정보격차해소사업 시범 추진 정보격차해소 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 및 콘텐츠 공동개발 학술 자문, 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 추진 정보격차해소 정책 개발 및 연구 청소년, 교원 대상 정보 통신윤리 교육 지역 주민 및 노인 정보화 교육 기타 상호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협력

등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국내·외 정보격차 해소의 종합적인 지원과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생산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지식정보격차 해소 전문기관이며, 양 기관은 앞으로 관련자료 및 연구성과의 공유, 교육 및 홍보의 상호 지원, 심포지움 및 세미나의 공동 개최, 주요 정책연구 및 조사의 공동 수행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직원 한마음축제

교수회(회장 김광렬)와 직원회(회장 조길환)의 공동 주최로 제2회 개신가족 한마음 축제가 지난 10월 23일 학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축제는 학내 구성원 간의 화합을 다지고 사기를 진작시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했으며, 교수와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로는 탁구, 족구, 배구 등의 친목경기와 한마음 간담회가 열려 가을 정취가 가득한 캠퍼스에 훈훈함과 정겨움이 가득한 하루가 됐다.



반려동물한마당 축제

수의대 동물의료센터(센터장 장동우)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2008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 청주시민 250여명과 애완동물 300여마리가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축제는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생명존중 사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작하여 올해로 18회를 맞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물의료센터 의료진들이 무상건강검진, 무료미용서비스를 제공했으며, ▶ 장애인 도우미견 시범공연 ▶ 페이스페인팅 ▶ 희귀 견종과의 기념촬영 ▶ 동물상식 OX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농업경영성공사례발표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 수상

전국 농학계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협의회에서 지난 7월 25일 개최한 「농업경영성공사례발표회」에서 농업생명환경대학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생(지도교수 이철원, 리신호, 김길하)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명품쌀 전공, 김상호), 농촌진흥청장상(양봉전공, 오만균), 전국농학계대학 회장협의회장상(농촌관광개발전공, 박동규)을 수상했다.

이번 성공사례발표회는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에서 후원하여 실시한 전국 규모의 발표회로 전문농업인 1,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대학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이 창조적 경영혁신으로 성공한 농업인 발굴과 농업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을 인정받고 우리 대학교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가 됐다.

[동문회비 납부안내]



은행에 가실 때 잊지 말고 동문회비(연회비, 평생회비, 임원회비, 장학기금)를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로입금

동문회비에 동봉된 지로를 이용합니다. (용지에 자세한 인적사항을 적어 보내 주시면 동문 찾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통장입금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고 타인의 이름으로 입금할 경우 동문회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04-12-236164 (예금주 : 충북대학교총동문회, 김주섭)
▶ 연회비 30,000원 / ▶ 평생회비 : 100,000원 이상

동문회비!

모교 사랑의 열매이며 동문회를 키우는 뿌리입니다.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지역 인재육성 공모사업」선정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센터장 이범준)가 지난 6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지역 인재육성 공모사업」에 최정 선정됐다.

이 사업은 단위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학습-고용 간 연계 및 사업통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그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산업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현장수요기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는 ‘ 실험동물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이 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

었으며, 이번 사업선정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등의 지자체와 공동으로 보건의료사업의 핵심인력인 실험동물 전문 인력의 양성을 통해 충청북도 바이오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

이 사업은 수의과대학, 한국실험동물학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이 참여하며,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실험동물기술원 양성 교육 ▲ 실험동물전문수의사 양성 교육 ▲ 실험동물전문가 상시양성을 위한 E-Learning 교육체계 구축 등의 세부사업에 연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수의대 장학기금 4천 300만원 기탁

지난 6월 10일 본부 5층 회의실에서 ‘수의과대학 개교 20주년 기념 장학기금 기탁식’이 있었다. 수의대(학장이 완규)는 개교 20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 교수들이 단합해 장학기금 4천 300만원을 조성하여 충북대학교 발전기금 재단에 기탁했다.

1989년 개교한 수의과대학은 20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수의학과 2개동, 동물의료센터,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등 훌륭한 교육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중앙일보에서 주관한 대학 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물의료생명과학사업단의 BK21 사업 선정, 동물의학연구소의 학술진흥재단 지정 중점연구소 선정, 동물의료센터의 교육부 지원 학교기업 선정 등 대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금전달식에서 임동철 총장은 발전기금 기탁에 대한 감사와 그간 수의대 교수들의 학교발전을 위한 노력을 치하하면서 앞으로 우리 충북대학교가 국내 최고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외봉사단, 중국 정암촌서 ‘뜻 깊은 방학’



지난 7월 22일 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 양수촌과 정암촌으로 해외봉사활동을 떠난 재학생 20명과 교직원 3명이 뜻 깊은 여름방학을 보내고 8월 6일 돌아왔다.

봉사단(단장 오병헌)은 미리 준비해 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이곳 소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주민들에게는 농사일과 하수로 정비 등의 일손돕기로 노력봉사를 펼쳤다. 또한 7월 24일엔 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중심소 학교예(교장 이광춘) 도서 300여 권을 기증하기도 했다.

한편 임동철 총장은 7월 31일 방문하여 참관사범대에 재학 중인 이 마을 출신 이상군 씨 등 학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봉사단과 주민들을 격려했다. 임 총장은 2001년부터 지역 내 다양한 인사들과 컨퍼런스를 만들어 이들에게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후원해 왔다.



평생교육원 “평생학습대상” 특별상 수상

평생교육원(원장 조남석)이 지난 10월 17일 오후 2시 「제7회 전국평생학습축제」의 연계행사로 열린 제5회 평생학습대상 시상식에서 ‘대학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평생학습대상은 평생학습을 통한 능력 중심의 학습사회를 실현하고, 평생학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평생학습에 헌신과 열정, 성과를 보여준 개인, 교육기관, 단체, 대학,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 학습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도이다.

특히, 대학·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부문은 지역사회에 풍부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문화 형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전국 300여 개의 대학·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중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발전에 기여한 기관 위주로 선정했는데, 우리 평생교육원은 지자체, 교육청, 민간기업과의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어성 능력 향상 프로그램, 실버대학 운영 등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으로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했다.

토목공학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에서 장관상 수상

토목공학부 토목공학전공(지도교수 한상훈, 홍기남) 구조연구실(석사 1년차 :한재원, 정규산, 학부생 : 안종민, 장정수, 김성문, 최대립)이 「2008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콘크리트 기술인의 사기고취와 콘크리트 기술력 제고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한국콘크리트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쌍용양회공업(주)가 주관하여 실시한 전국대회로 총 131팀이 참가해, 콘크리트 제조기술 능력과 혁신기술개발 등에서 경연을 펼쳤다. 우리 팀은 본선 36팀과 한달여간 경쟁하여 평가항목(고유동, 고강도, 정확도, 정밀도, 경제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목표한 압축강도 130MPa의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생산하여 2위로 수상하게 됐다.

이번 수상을 통하여 토목공학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토목공학부 토목공학전공 구조연구실이 이 분야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된다.

중국 해외봉사 실시

재학생 20명이 하기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15일간 중국 연변지역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해외봉사단(단장 오병헌)은 지난 7월 14일 발대식을 갖고, 22일 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 양수촌·정암촌으로 봉사활동을 떠났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되는 정암촌은 “청주 아리랑” 살아있는 곳으로서 1938년 충청북도 청주, 옥천 등지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개척하여 조성된 마을이다.

김향숙 학생처장은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한 국제경험 확대와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간 문화교류를 통한 친선과 상호이해를 증진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현지에서 학생 및 주민들에게 교육봉사 활동(과학, 수학, 영어, 레크리에이션)과 일손 돕기 노력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자매대학인 연변대학을 방문하기도 했다.



의대 ERC 및 약대 MRC 선정

우수공학연구센터(ERC)



센터장 김원재



부센터장 차은종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센터장 흥진태

의과대학과 약대학이 과학분야의 연구센터를 잇따라 유치해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의과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하는 '2008년도 우수연구집단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우수공학연구센터(ERC)를 유치하는 개가를 거뒀다. ERC는 국내대학의 우수 연구 인력을 특정 분야별로 조직 체계화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선도 과학자군으로 육성하

는 사업으로 이번에 유치한 ERC인 "종양치료 개인특화를 위한 기기 시스템 연구센터"는 (영문 약어 PT-ERC) 향후 7년 간 약 100억원 규모의 집중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김원재 센터장은 비노기계 종양의 기전을 규명하는 기초연구와 환자 맞춤형 진단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차은종 부센터장은 맞춤형 의료기기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응용 연구를 담당한다.

약학대학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이 지원하는 '2008년도 우수연구집단 육성사업'의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신규사업(센터장 흥진태)에 전국 약학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선정된다. 흥진태 교수 등이 제안한 기초의과학연구센터는 기존 항암제의 부작용과 내성 극복을 위한 타겟 중심의 화학요법제와 항암면역세포 치료제 개발을 연구목표로 9년간 64억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국립대 부문 1위

우리대학이 2008년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국립대 분야에서 1위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9월 23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수상식을 가졌다.

KS-SQI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서비스 산업의 전반적 품질 수준에 대한 고객의 객관적인 평가와 만족도를 나타내는 종합지표로 우리대학은 교수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서비스 접근 편리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교육기관이 수행할 본분에 충실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개교 57주년, 종합대학교 승격 30주년과 더불어 이번 '고객중심교육'을 가장 잘 실천한 대학으로 평가받은 것은 참으로 큰 경사다. 의학전문대학원을 충실히 운영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했으며, 특성화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은 결과로 충북도민이 인정하는 중부권 중심대학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성장했다.

우리대학은 학생, 학부모, 동문 및 도민들의 진심어린 사랑과 후원에 보답하는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미래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으로 더욱 매진할 것이다.



경영학 교육인증 국내최초 획득

경영대학(학장 이장희)이 국내 최초로 한국경영교육인증원에서 수여하는 경영학교육인증을 획득해 지난 10월 23일 축하행사를 가졌다.

경영대학은 지난 10월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의 경영학교육 인증을 받은 전국 5개 대학 중 국립대학으로서나 지방대학으로는 유일하게 경영교육인증원의 최종 심사에 통과 됐다.

경영학교육인증제란 우리나라 경영학 교육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 대학의 경영학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이다.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은 인증을 신청한 대학에 대하여 비전설정 및 미션수행, 학습 성과 및 평가, 교육과정과 수업, 시설 및 교육환경 등에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심사를 수행한다.

경영대학은 경영교육발전을 위해 기업윤리 과목은 영 활성화, 인턴십 확대 시행, 경영대학 취업포럼의 격주 운영,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무료 토익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인증획득으로 경영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리대학의 위상을 한층 더 높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영대학 체육대회와 경영인 어울림 한마당잔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전교생 대상)이 개최되었으며, 인증획득보고대회 및 축하리셉션이 진행됐다.



2008년도 회비 납부자 명단

- ◎ 회장 (1,000만원) 김주섭(토목 70)
- ◎ 수석부회장 (300만원) 김태훈(화공 70)
- ◎ 부회장 (50만원)

최재형(농학 55), 김상필(토목 70), 김현필(체육 70), 양재욱(약학 70) 유인호(영어 70), 임상화(약학 70), 손영철(과학 71), 신계종(토목 71) 이경구(농공 71), 홍순규(수교 71), 김영분(국어 72), 김흥식(국어 72) 이한철(체육 72), 조재순(가정 72), 최한기(체육 72), 김명수(체육 73) 박노균(국어 73), 이경로(농경 73), 하수용(토목 73), 곽소신(토목 74) 손세원(토목 74), 송석철(토목 74), 정광용(농학 74), 허 백(토목 74) 박재훈(농학 75), 변재경(체육 75), 신현욱(임학 76), 이재봉(농경 75) 이명원(토목 76), 이인수(농경 76), 송기진(토목 76), 나명찬(행정 77) 박경국(농경 77), 엄태영(화공 77), 김요식(화공 78), 김형근(경영 78) 이왕영(원예 78), 임병덕(역사 78), 김진수(토목 79), 김현태(토목 79) 김황호(건축 79), 박관선(화공 79), 성석제(경영 79), 유운기(행정 79) 윤진환(물리 79), 송태영(행정 79), 이기동(경영 79), 장덕수(농기 79) 최영호(경제 79), 박종서(토목 80), 심두진(경영 80), 최병윤(건축 80) 황영호(행정 80), 김사석(체육 81), 김우성(법학 81), 김홍연(토목 81) 박용만(생물 81), 박완배(법학 81), 송재용(경영 81), 신민철(토목 81) 최현호(법학 81), 신동엽(무역 82), 윤혜경(약학 82), 이은봉(농학 82) 장윤식(식품 82), 조성록(임학 82), 최석근(토목 82), 이기하(농생 83) 양승덕(의학 85), 서래원(물리 89), 손인석(경영 90), 권광택(경정 00) 박노성(교육대학원), 김정호(경영대학원), 홍순철(생활대)

채성석(경영대학원), 이풍희(산업대학원), 정내현(산업대학원) 김민호(산업대학원), 김종복(산업대학원), 한상관(산업대학원)

◎ 상임이사(20만원)

신철수(임학 68), 이명복(축산 69), 한동환(수교 70), 류경순(가정 71) 윤석성(과학 71), 강기동(농학 72), 이용순(가정 72), 조승영(토목 73) 강재원(토목 75), 김기탁(국어 76), 김수근(사회 76), 정노희(화공 76) 안재형(전기 77), 이상태(연초 77), 김길하(농생 79), 김상인(화학 79) 김진상(토목 79), 신은철(토목 79), 오원재(경영 79), 이종영(재료 79) 최우하(경영 79), 김수갑(법학 80), 박필현(미술 80), 이용희(무역 80) 이진희(건축 80), 전항배(토목 80), 박세종(토목 81), 유흥열(토목 81) 윤일로(토목 81), 이기수(미술 81), 이동섭(국문 81), 김기동(생물 82) 신현구(경제 82), 이봉직(토목 82), 이우호(토목 82), 황운서(경제 82) 박종진(체육 83), 신홍섭(경영 84), 김법기(전자 85), 유상용(약학 86) 이석호(기계 86), 강태원(행정 88), 송영기(전산 89), 조성훈(법학 90) 김영주(전기 91), 유용철(회계 91), 구본석(경영 93) 박용현(산업대학원), 연영만(산업대학원)

◎ 평생회비

나운한(행정 77), 함택모(농기계 78), 김원겸(사교 79), 조봉제(경제 80) 한준호(토목 82), 안광국(토목 85), 김재홍(행정 86), 최현일(환경 86) 각 10만원 신창섭(임학 79) : 20만원

◎ 년회비

신우철(농경 73) 3만원, 류주형(농경 81) 2만원, 서정국(전자85) 3만원



동 문 단 상

히말라야 오지마을 기행문



박연수

· 사회학과 83학번

히말라야 봉우리 가운데 인간에게 최초로 문을 열어 준 8,000m의 고봉 안나푸르나! 산스크리트어로 '풍요의 여신'이라 일컬어지는 그곳에 히말라야 오지마을 문화 체험단은 히말라야의 대자연 품에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간극을 좁히고 소통의 기회로 삼고자 1월 8일 12박 13일의 일정으로 발을 내디뎠다. 학생이 중심이 되고 가족이 함께한 히말라야 오지마을 문화 체험단은 카투만두의 튜리뷰빈공항에 도착을 하여 현지 스텝들과 짧은 만남을 갖은 후 매연이 가득하고 복잡한 거리를 통과하여 야크인 에티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네팔 전통식당인 네팔리 출루에서 전통 음식과 공연으로 네팔의 첫날밤을 맞이하였다.

다음날 아침 대형버스에 짐을 옮긴 체험단원들은 설레는 가슴을 안고 목적지로 출발하였다.

카투만두를 벗어나니 저 멀리 량탕의 설산이 우리를 반겨준다. 주의의 분위기와 전혀 다른 설산의 모습에 카메라 셔터가 번쩍거린다. 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가게들은 60년대 우리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여행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단원들이 피곤에 떨어질 쯤 도착한 포카라는 한 산하다. 오늘이 번다란다. 번다란 '무엇인가 요구를 하기위해 공동으로 뜻을 같이하기 위한 일종의 파업'이다. 포카라는 네팔의 휴양도시로 안나푸르나 산군의 트레커와 등반자들의 최종 점점지이자 휴식처이다. 포카라에서는 안나푸르나 산군이 한눈에 들어오고, 거대한 호수인 페화호에 투영된 히말라야 산군의 모습은 트레커들을 히말라야의 공간으로 빨아들이는 흡인력을 가지고 있다. 시간을 벌기위해 우리 체험단은 안나푸르나 트레킹 시발점인 패디에서 승합차로 같이타고 넓게 만들어진 마을의 농로를 지나 담푸스에 도착하였다.

히말라야 지역에 처음으로 도착한 담푸스에서 눈앞에 펼쳐진 히말라야의 진풍경은 그 자체만으로도 억눌렀던 가슴을 확 트이게 해주었다. 안나 남봉, 히운출리, 마차푸차레, 안나3,2봉 람중히말은 여느날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편안함과 경이로움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처음으로 대하는 룯지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삶의 환경에 적응하려 애쓰는 모습이였다. 닭 매운탕으로 저녁을 먹은 단원들은 룯지 위 자그마한 운동장에서 어둠을 뒤로 한 채 공놀이하는 현지의 아이들과 학생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하였다. 어둠속에 잘 보이지 않는 공을 우리 학생들은 따라가기도 급급한데 현지 어린이들은 잘도 가지고 논다. 팀을 이루어 야간 경기를 해보려 준비를 하는데 공이 마을의 벼랑길로 자취를 감추었다. 아쉬움을 뒤로한 체험단원들은 내일의 일정을 위해 마차푸차레의 하늘 아래 가리워진 룯지로 돌아섰다.

설레는 마음을 접고 모두들 침낭의 좁은 공간에서 새근새근 잠이 든다. 히말라야는 밤하늘의 보름달로 우리를 반겨준다.

이른 아침 저 멀리 마차푸차레의 여명과 함께 눈을 비빈다. 경쾌한 출발소리와 함께 체험단원들은 첫발을 내딛는다. 마을을 통과하여 숲속으로 들어선다. 오른쪽으로 만년설의 산군을 거느리고 적당히 내리찍는 태양빛을 벗 삼아 한발 한발 내딛는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힐 무렵 초우따리가 우리에게 쉼터를 제공한다. 초우따리는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의 다리섬을 위해 만들어진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쉼터이다. 능선을 가로질러 고갯마루에 오르면 포타나마을이 나타난다. 지난번 이곳을 방문하였을 때 마을 학생들과 축구시합을 하여 4:1로 패했던 곳이기도 하다. 그날 밤은 무수히도 많은 별들이 우리의 이마에 쏟아지기도 했던 곳이다. 이곳에서의 기념 촬영을 끝내고 테우랄리에 다다르니 저 멀리 다울라기리가 안나푸르나 산군과 함께 펼쳐진다. 다울라기리는 1950년 모리스 엘조그라는 등산가가 처음으로 등반을 시도하려다 접근이 어려워 안나푸르나로 발길을 돌린 8,000m 고봉으로 안나푸르나와 함께 캘리 켄터키 강을 이루어 흐른다. 백색과 초록이 조화를 이루는 이곳에서 다리섬을 끝내고 급경사의 내림 길을 얼마간 내려가니 툭! 마을 입구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걷는다. 도네이션 함에 기부를 하고 마을의 룯지에서 옆구리 터진 김밥과 찐 계란으로

허기진 배를 채운다. 산허리를 가로질러 이어진 길가에는 마을 아낙 5명이 앉아 소일을 하고 히말라야 개가 망중한을 즐기고 있다. 산 전체에 만들어진 다랑이 논 사이로 집들이 드문드문 이어져 있고 지붕 개량을 하는 마을 주민들의 손길이 여유가 있다. 민가가 촘촘히 이어지며 제법 큰 룯지들이 나타난다. 이곳이 오늘의 숙박지이자 학교 방문행사 계획이 있는 난두룩 마을이다. 숙소는 지난해 왔을 때 머무른 러비나양이 일하는 호텔 세르파룯이다. 이곳의 옥상에서는 안나 남봉과 히운출리가 형제처럼 다정히 어깨동무한 듯 보이는 최고의 전망을 볼 수 있다. 난두룩 초등학교를 방문하기 위해 짐을 기다리는데 포터들이 당도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짐이 도착하지 않으니 마음이 분주하다. 현지 학생들을 위한 선물이 포터들의 집 속에 있기 때문이다. 스텝들을 재촉한다. 이곳에서의 일정이 하루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다. 또 날이 저물어 행사를 하면 학생들이 저 산 아래, 위로 멀리 어둠을 뚫고 집으로 가야하지 않는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듯하여 학교로 먼저 이동하였다. 1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우리를 환영해 준다. 현지의 학생들이 생활로 만들어 우리에게 걸어준 꽃목걸이가 인상적이다. 우리는 방문의 목적을 설명하고 학생들과 함께 작은 운동회를 열었다. 학생들이 함께하는 춤사위를 시작으로 떨어질세라 허리를 부둥켜 앉으며 진행되는 꼬리잡

기, 단체전인 닭싸움 등 흐르는 시간을 잊기에 충분한 운동회였다. 모두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네팔 민요인 레쌌베리리, 우리 민요인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서로의 우정을 쌓았다. 처음엔 서먹서먹하던 학생들도 모두가 함께 되어 우정을 나누고 있었다. 서로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해가 서서히 기울고 우리는 준비해간 웨스트우드 의류 및 대한적십자사 우정의 선물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학교 기부금도 듬뿍 내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네팔에 이제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현실이 된 것이다. 너무 기뻐하는 학생들을 바라보하니 준비해간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다음부터는 더욱더 많은 선물을 준비해야 할 듯하다. 룯지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치니 마을 사람들이 속속 룯지로 온다. 감사의 뜻으로 공연행사를 마련한다. 마을의 민속 공연단이 연주를 하고 마당에 피워놓은 모닥불과 함께 즐겁고 흥겨운 춤사위가 밤하늘을 수놓는다.

최양재 선생과의 늦은 대화 또한 즐거운 시간이였다. 난두룩에서의 밤은 언제나 즐겁다.

아침이 밝아오는데 설사 이야기가 한창이다. 몇 명의 단원들이 밤새 화장실과의 긴밀한 접촉을 한 듯하다. 형준이 외 세 명이 심한 모양이다. 일정이 순탄치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부모 떨어져 온 형준이가 안스럽다.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러비나양과 인사를 하고 저 멀리 보이는 안나 남봉을 향해 걸음을 옮긴다. 하늘에서 이어진 파이프를 따라 내려오는 물의 낙차를 이용한 수력 발전시설을 지나 물가로 내려서니 오른



쪽으로 거대한 폭포가 시원스레 내리 뿜는다. 폭포아래의 평평한 공간에 위치한 구멍가게를 가진 룯지에서 모두들 기다리고 있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형준이를 정경숙님과 윤성희님이 데리고 온다. 일단 물을 끓여 발을 씻긴 후 마사지를 해주고 재우며 미안하지만 두 분께 형준이를 부탁하고 다시 출발을 한다. 30m는 족히 되는 출렁다리인 뉴브릿지를 건너 두 채가 나란히 있는 룯지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나서 먼지가 솟아오르는 오름길을 향한다. 얼마를 오르니 계단식 논이 발달된 길가에 민가가 나온다. 너무 토마토가 눈에 띄고 멀리 원숭이 소금이라는 하얀 바위가 보인다. 거대한 사태가 난 곳 못 미처 다리를 건너 줄곧 오르니 지누난다. 이곳에서 점심을 먹으며 후미와 연락을 하니 형준이가 탈진 상태란다. 머리가 혼란스럽다. 일정을 수정하여 이곳에서 하루를 머물까 교신을 하니 원래 계획대로 춤릉까지 가지는 후미의 교신이다. 고민 끝에 점심 식사 후 춤릉을 향하기로 했다. 이번 과정 중 가장 가파른 곳이기도 하다. 한발 한발 내딛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힘듦이 묻어난다. 어우르고 달려며 계단위로 다리를 얹어 놓는다. 정숙영님의 발길이 무겁다. ABC까지 갈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앞

선다. 아들인 기배는 ‘포기란 단어는 자기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엄마를 격려한다. 저 하늘 봉우리에 서 살아가는 촌통 사람들은 앞뒤로 가파른 길 뿐이니 그곳을 지나야 하는 나그네 또한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 어느덧 마을 입구 팻말이 눈에 들어온다. 제법 잘 정리된 마을이다. 전망 좋은 롯지에서 방 배정을 하고 뒤에 오는 대원을 기다린다. 어둠이 깔리고 걱정이 깊어질 즈음 헤드랜턴 불빛과 함께 마지막 세 명이 들어온다. 형준이의 몸 상태가 조금 좋아졌단다. 하늘이 구름에 가리운다. 모든 단원들의 피곤을 풀어주기 위해 다이닝 홀에 난로를 피워 온기를 만들어 주고 닭백숙으로 체력을 보강해 준다. 학생들이 많이 지친 모양이다. 모두들 일찍 꿈나라로 향한다. 사실 지난번엔 지누난다에서 점심을 먹고 온천욕까지 하고 올라와 여유를 즐겼던 촌통인데 이번엔 여유가 없다. 설사 환자가 증가해 특별히 음식에 신경을 쓰는데도 해결이 안되니 마음이 무겁다. 새벽녘 구름을 걷어낸 하늘에선 별과 달이 춤사위를 풀어낸다.

형준이 상태가 양호해졌다하여 좋아했더니 이번엔 희섭이가 탈이 생겼다. 촌통까지 올 때 별 탈 없이 씩씩하게 올라온 희섭이다. 아마도 말없이 너무 많은 힘을 쓴 모양이다. 하루 정도 쉬려해도 일정이 녹록치 않으니 별 수 없이 출발해야 한다. 이번에도 정경숙·윤성희님이 희섭이를 보호하고 따라온단다. 정경숙님께 미안하다. 히말라야를 느끼고 함께하기 위해 참여한 시간인데 아픈 학생들 간호 하느라 쉴 틈이 없으시다. 지식 등을 키우던 습관이 몸에 배어있다고 말씀하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감사할 따름이다.

끊임없이 내려가는 마을의 내림길을 걷는다. 돌계단으로 이루어진 2,744계단이 내림길인데도 다리를 후들거리게 만든다. 길가의 중간에 위치한 가게에서 이재룡님이 준비한 콜라한잔에 갈증을 풀고 계곡에 내려서서 티베탄 브릿지를 건너니 하얗게 얼은 오르막길이다. 조금씩 힘들어하는 대원들이 보인다.

안나 남봉과 히운출리가 시야에서 비켜나고 먼지 나는 오름길에 몸이 처지기 시작하는 즈음 시누와 고갯마루에 오르면 마차푸치레가 반겨준다. 마차푸치레는 생선꼬리같이 생긴 봉우리로 마차(생선)와 푸치레(꼬리)가 합성된 말로 영어로는 Fish Tail이라 불린다. 힌두신인 시바신이 신혼여행을 온 장소로 신성시 되는 마차푸치레는 지금껏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산이다. 신성한 산 마차푸치레를 바라보며 농심에서 제공한 등지 냉면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오름길에서의 피로를 다스린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희섭이와 지친 학생들을 위해 도반까지의 목표를 밤부로 줄여 시간을 단축하기로 하였다.

속도도 문제가 없다는 스텝들의 확인을 받고서다.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하는데 형준이, 공희, 기배가 나란히 설사를 한다. 30분 넘어 언덕을 넘자니 저 멀리 빨간 열매가 달린 나무에서 히말라야 원숭이들이 우리를 환영하며 곡예를 한다. (히말라야원숭이는 붉은 털 원숭이라 불리며 몸길이가 약 60cm, 꼬리길이가 약 25cm이다. 몸 빛깔은 붉은빛을 띤 갈색이고, 허리는 주황색을 띠고 있으며, 얼굴은 분홍색이다. 잡식성으로 먹이는 나무열매·종자·곤충과 같은 것을 볼주머니 속에 넣은 다음 바위가 많이 있는 곳이나 나무 그늘 등 안전한 장소로 가서 먹는다. 번식기와 출산기는 지방에 따라 다르다. 임신기간은 약 5개월이며, 한배에 1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성질이 온순하여 동물원이나 유원지 등에서 사육하며, 곡예 훈련도 시킨다. 사람의 혈액형(Rh 혈액형)인 Rh인자는 이 종의 영어명의 약자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 혈액에 있는 항원과 같은 것의 유무에 따라 Rh+와 Rh-로 구별된다. 구하기 쉽고 사육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의학·생리학등의 각종 실험에 이용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동부와 중국의 쓰촨성[四川省]·윈난성[雲南省]·하이난섬[海南島], 인도의 잠무카슈미르 및 네팔·미얀마·타이·인도네시아·티베트 등지에 분포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잠깐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피로를 잊는다. 아직 초등학생인 윤지는 묵묵히 제 갈 길로 가고 있지만 오빠들 따라가는 것이 벅찬듯하다. 다른 단원들을 미리 보내고 윤지와 모처럼 천천히 가는데 갑자기 배에서 천둥소리가 들린다. 헉! 급설사! 잠깐 불일을 보고 쉬고 있으려니 유영희님이 혼자 오신다. 윤지를 유영희님께 딸려 보내고 정숙영님과 기배를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마중을 한참 나가니 기배가 꽤나 설사를 했단다. 배낭을 받아가지고 함께 간다. 마침 포터가 내 배낭을 들고 내려 오길래 기배를 업어 달라 부탁을 하였다. 다시 짐을 받아 기배를 걷게 하고

‘조금만 가면 된다.’ 격려하며 걷는다. 무전이 왔다. 밤부에 숙소가 꼭 차 원래 예약했던 도반으로 가야 한다. 큰일이다. 희섭이가 뒤에 있고 기배 또한 상태가 좋지 않은데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니 걱정이 앞선다. 오늘 모두 도반에 도착하려나? 빨리 출발하라는 교신을 하고 서두르는데 생각보다 밤부가 꽤 멀다. 밤부에 도착하니 어둠이 내려온다. 밤부에서 충남 전교 조팀의 이세중 대장에게 오렌지 주스를 얻어먹고 서둘러 출발하였다. 무전이 왔다. ‘모두들 도착했다’고 다행이다. ‘짐 정리하고 쉬고 있으라.’ 하고 렌턴불을 밝히고 올라가는데 왠지 불안한 생각에 인원 확인을 다시 해보라 무전을 했더니 두 명이 부족하단다. 유영희님과 초등학생인 윤지가 없다는 것이다. 덜컹 겁이 나기도 했지만 유영희님이 있으니 다행이다. 유영희님은 량탕히말을 탐사했던 유경협자이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마음이 놓였다. 빨리 설피들을 내려 보내라 독촉하고 정숙영님과 기배를 재촉한다. 설피들이 도착하고 마음에 여유를 가지니 유영희님과 윤지도 도반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롯지에 도착해 윤지가 놀라지 않았을까 물어보니 대견하게도 답답하다. 마음을 쓸어내린다. 저 아래 시누와 몸이 아픈 희섭이와 보호자 둘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침낭과 약과 먹을 것을 내려 보냈다. 자신의 몸을 추당하기도 어려운 데 약을 지어주시는 약사인 정숙영님과 묵묵히 할 일을 해 주는 스텝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단원이 둘로 나뉘어지고, 지쳐있고 이래저래 정신없고 심란한데 하늘은 그저 웃기만 한다.

아침에 눈을 뜨니 공희는 토했다 하고 정숙영님 모자는 너무 지쳐 이곳에서 더 쉬어아셨단다. 두 모자의 일정은 시누와팀이 올라오면 결정하라고 언질을 주고 이곳 도반에 남기로 하고 출발하였다. 공희는 상태가 매우 좋아졌다. 제발이지 모두와 함께 가기를 희망하며 발길을 옮긴다. 옹현이 윤호 모두 아버지의 영향인지 건강해서 큰 걱정이 없다. 형준 또한 씩씩하다. 어른들은 모두 상태가 좋다. 윤지가 조금씩 힘들어한다. 그래도 크게 짐이 되지는 않을 만큼 자기 역할은 충실히 해낸다. 데우라리를 지나니 천지가 눈에 덮여 있다. 이곳부터는 주의의 풍광이 거대한 협곡으로 바뀐다. 햇빛에 녹은 눈이 신발을 적시고 미끄럽도 함께

가져온다. 안나푸르나의 중간을 가로 지르는 모디콜라의 중간 협곡을 걷는다. 거대한 바위 절벽 사이로 걷는 우리 모습이 들판에 솟아 있는 잡초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나를 더 가지려고, 하나를 더 얻으려는 인간 속세에서의 모습들이 왠지 부끄럽게 느껴진다.

저 멀리 강가푸르나가 눈가에 들어오고 마차푸치레가 거대한 벽을 내밀 때, 우리의 발길은 마차푸치레 B·C의 롯지에 닿았다. 날씨도 제법 차가워진다. 하나들 롯지에 도착하고 그간 학생들 간호 하느라 우리와 떨어져 있던 정경숙님이 유영희님, 강중목학생과 함께 나란히 들어온다. 너무 감사하고 반갑다. 우리보다 반나절이나 먼 곳에서 출발하여 함께 이곳에 닿은 것이다. 그녀가 충북도계 탐사대원인 것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도반에 있던 정숙영님 모자는 시누와로 내려갔고 희섭이는 그곳에 남기로 하였다고 전해 주었다. 식사 후 모두에게 준비해간 압축 산소인 산소샘을 마시게 했다. 지난번 이곳에서 몇 명이 고소로 고통을 호소하였기에 미리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다행히도 아직 고소의 고통을 가지는 단원은 없었다.

산소 때문일까? 예단은 할 수 없지만 자는 침낭까지 가져간 압축 산소는 분명 어떤 역할을 했으리라. 하늘에 별이 제법 노닌다. 마차푸치레 위에서 빛나는 별, 저기 안나 남봉을 비추는 별, 머리 위를 수놓는 별들의 향연에 잠시 넋을 놓는다.

별들도 고요한 새벽에 우리는 떡국을 먹고 출발을 서두른다. 컨디션은 모두 양호하다. 4시 50분. 어둠속을 뚫고 안나푸르나 베이스를 향한다. 어둠 속 별과 달이 우리의 동반자다. 모두들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가도 가도 끝없는 설원의 목표점, 오르고 또 올라도 다시 나타나는 오름길, 잠시라도 다리쉼하면 몸 깊히 들어오는 한기, 움직일 때마다 뛰어오르는 심장소리.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모두들 함께 서서히 오른다. ABC의 롯지가 눈앞에 나타나고 해가 서서히 안나푸르나를 비춘다. 어둠의 고요를 깨는 거대한 장관이 연출된다. (PD는 하나님, 주연은 해와 안나푸르나, 조연은 히말라야 오지마을 문화 체험단원과 아직 우리와 함께 하고픈 달과 어둠.) 이동수님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기자인 한덕동님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태고의 신을 일깨우는 장엄한 광경을 담기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ABC에 다다르니 벅찬 흥분이 밀려온다. 모두들 이상 없이 이곳에 있다. 도반에 있는 단원이나, 시누와에 있는 단원 모두가 진정한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 있다. 롯지 위의 언덕에 올라 그곳까지 올라

온 자기 자신과 함께 히말라야의 장엄함에 감탄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는 1999년 4월 29일 이곳 7,900m지점에서 실종된 지현옥 산악인의 추모제를 준비하였다. 우리나라 아니 세계 최고의 여성 산악인이 잠들어 있는 이곳 “현옥이형 어디계신가요” 목 놓아 소리 지른다. 아마도 이곳의 산신이 되어 우리를 보살펴 준덕에 우리 모두 무사히 여정을 마치지 않았나 싶다. 간단한 제상에 머리를 조아리니 가슴에 베인 그리움이 불을 타고 눈물이 되어 흐른다.

(지현옥 산악인은 여성으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맥킨리, 에베레스트를 등정 했으며 여성으로 가셔브룩 2봉을 세계 최초로 단독 무산소 등정을 한 여성이었다. 안나푸르나를 등정함으로써 8,000m 지아인트고봉 4개를 등정한 그녀는 실종되기까지 여성 산악인이기 보다는 산악동지로 함께 하고자한 남·녀를 떠나 이 시대 진정한 산악인 이었다.)

히운출리, 안나푸르나 남봉, 안나푸르나 평, 안나푸르나, 3봉, 4봉, 강가푸르나, 마차푸치레, 히운출리가 우리를 빙 둘러 펼쳐져 있다.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대자연의 조화 속에서 히말라야 신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행복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곳을 오르며 무



안나 남봉과 히운출리가 시야에서 비켜나고 먼지 나는 오름길에 몸이 처지기 시작하는 즈음 시누와 고갯마루에 오르면 마차푸치레가 반겨준다. 마차푸치레는 생선꼬리같이 생긴 봉우리로 마차(생선)와 푸치레(꼬리)가 합성된 말로 영어로는 Fish Tail이라 불린다. 힌두신인 시바신이 신혼여행을 온 장소로 신성시 되는 마차푸치레는 지금껏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산이다. 신성한 산 마차푸치레를 바라보며 농심에서 제공한 등지 냉면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오름길에서의 피로를 다스린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희섭이와 지친 학생들을 위해 도반까지의 목표를 밤부로 줄여 시간을 단축하기로 하였다.

엇을 얻었나? 머리가 공허하다. 아마도 무상의 자유를 얻은 듯하다. 신만이 가질 수 있는 무상 무소유의 자유를 만끽하며 발길을 세속으로 돌린다.

자유롭게 마차퉁치레 B·C로 하산하라 하고 얼굴이 부어오른 윤지와 나란히 내려갔다. 그간 전체 일정을 챙기느라 신경을 못써준 딸을 위해 사진도 찍어주고 격려도 해주며 말이다. 아이젠을 신지 않고 내려가다 살짝 미끄러졌는데 '전문가 일수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윤지가 웃으며 충고를 건넨다. 제법 자라 어느덧 아버지를 걱정해주는 딸아이와 함께 하니 마음이 뭉클하다. 다시 MBC에 당도해 점심을 먹고 천천히 내려간다. 가끔씩 만나는 트레커들은 초등학교 4학년인 윤지가 ABC에 다녀왔다고 칭찬하며 감탄한다. 힘들게 내려가고 있는 윤지에게 제법 위안이 되는 말이다. 올라갈 때보다 더 힘이 없어진 윤지를 200m 정도 업어 주었더니 그때부터 힘을 내 씩씩하게 걸어간다. 아빠의 사랑을 느껴서일까? 먼저 가는 오빠와 아저씨들도 제치고 도반에 도착하였다. 모처럼 학생들 일기도 챙기고 어른들은 모여 술 한 잔하며 웃기 주인과 스텝들과 춤추며 놀았다. 마음이 편해지니 취기도 오르고 하늘의 별들이 춤을 추는지 내가 춤을 추는지 분간이 되질 않았다. 오늘 밤 별과 달이 찌그러졌다.

룰루랄라 출발 소리 경쾌하며 마음 또한 가볍다. 물론 피곤이 몸을 휘어 감고 있지만 여유가 있는 모습들이다. 밤부를 지나 내려가는데 이번엔 바로 근처에서 원숭이들이 떼를 지어 축하를 해주고 있다. 물가에 앉았다가 사라진 원숭이는 기골이 장대하다. 멀리멀리 사라져 가는 봉우리들을 뒤돌아보며 사진을 찍는 여유를 즐긴다. 시누와를 지나 툼체에 도착하여 촌롱마을과 지누난다를 바라보며 떡리면을 먹고 출발하였다. 힘껏 내려갔다. 올라간 촌롱에서 티벳 약세시리를 쇼핑하고 바로 지누난다를 향했다. 이곳을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다는 기쁜 탄식소리를 들어가며 내려가니 지누난다다. 먼저 이곳을 지키고 있던 윤성희님, 정숙영님, 신희섭, 김기배학생을 만났다. 모두들 건강해져 있었다. 너무 감사했다. 희섭이 간호하느라 ABC에 함께 못간 윤성희님의 한마디 '사진기를 잃어버렸다 해주세요'라며 함께 못한 아쉬움을 토해낸다.

서둘러 옷가지를 챙겨 따또비나라 불리는 온천으로 내려갔다. 20~30분 내려가 달은 노상온천이 지난번보다 깨끗해지고 관리인도 있었다. 외국팀들이 자리한 곳에 서로 나누어 찌든 때를 마음껏 씻어냈다. 몸과 마음의 모든 찌꺼기를 날리니 제법 가벼워지며 윤기가 돌았다.

어둠이 내리고 한덕동님이 준비한 염소고기로 배불리 저녁을 먹고 그간 함께 고생한 모든 스텝, 포터들과 함께 여흥의 시간과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숲이 되어버린 모닥불에 둘러 앉아 설사 이야기를 하는 중 정숙영님의 한마디 "그래도 설사하며 하늘을 바라보다니 수많은 별을 보았고 새벽이 되면 별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게 설사가 나에게 준 혜택이다." 말 속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깊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피어오른 연기가 밤하늘의 은하수를 만들고 있었다.

이제 포카라로 가는 날이다. 원래는 비레탄티에서 자고 민가를 방문하여 마을 체험을 하려 하였으나 모든 단원들의 소원이 포카라로 가고 싶단다. 서둘러 가지만 만만하지 않은 길이다. 특히나 올라가며 많은 힘을 쏟은 학생들이 피곤해 보인다. 마을의 풍치가 정겹고 사라져가는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아쉽기는 하지만 나 자신 또한 빨리 나가고 싶다. 간두룩 학교에서 잠시 쉬며 학생들을 만나고 사우리버잡에 도착해 알루(감자)와 찐 계란, 티베탄 브레드로 점심을 먹었다. 이곳도 한참 도로공사 중이었다. 몇 년 후 이곳으로 차가 다니겠지.

옛 모습을 이야기하며 이곳을 다시 찾을 일이 있을까? 조금 지나 넓은 길을 터벅터벅 걸으니 비레탄티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다. 갤러리에 들러 그림을 보니 마땅치 않아 바로 나아폴로나갔다. 기다리던 관광차에 오르면 아쉬움과 안도감이 교차한다. 그간 고생한 포터들에게 팁을 나누어 주고 포카라로 향한다. 모두들 꿈나라 직행이다.

포카라의 베이스캠프 리조트에 여정을 풀고 한식식당에서 삼겹살과 함께 영양을 보충하고 편안한 여정을 즐겼다.

안개에 쌓여있는 아침 시간 이곳의 동굴폭포와 힌두 사원, 티벳 난민촌을 방문하였다. 티벳 난민촌은 제법 정리가 잘되어 있으며 교육 시스템 및 생활환경이 잘 갖춰져 있었다. 나라를 잃은 설움을 달래고 독립을 하고자 조국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꿈을 이루려고 모인 독립운동의 전초기지였다. 옛날 우리 선조들도 일제 강점기에 이러했으리라. 가슴이 숙연해진다. 난민촌을 나와 자유시간을 주었다. 폐화호에서 배도타고 쇼핑도 하며 모처럼의 여유시간을 보냈다.

다음날 일찍 준비를 해 공항으로 갔더니 카투만두에서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고 2시간여를 기다렸다. 점심때쯤 이륙한 비행기로 카투만두에 도착하여 바로 여장을 풀고 바로 옆 옥류관에서 평양랭면으로 점심식사 후 자유시간을 가졌다. 탐멜거리를 활보하고 쇼핑도 즐기며 그들의 삶속에 어느덧 동화된 모습이였다. 저녁 빌라에베레스트에 이재룡님이 준비한 즐거운 삼겹살 파티를 가졌다. 빌라에베레스트는 우리나라 사람이 네팔에 처음 만든 게스트 하우스로 대한의 등반대원들이 거쳐 간 아니 꼭 거쳐야 하는 등반의 거점이기도 하였다. 정광식, 엄홍길 산악인을 거쳐 지금은 박영석 대장이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앙도르지라는 네팔인이 운영을 하고 있다. 본인도 피상피크 등반을 할 때 이곳에서 등반 준비를 하였으며 네팔을 방문 할 때 마다 꼭 한번은 들르는 곳이다.



네팔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호텔식으로 하고 짐을 모두 로비에 가져다 놓고 슈암부너트로 향했다. 카투만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은 창건된지 2,000년이 된 사원으로 원숭이 사원으로 불린다. 슈암부너트는 갖가지 진기한 티벳의 상품을 가져다놓고 체험단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곳을 지나 도착한 보드넛 사원은 번다 때문에 혼란스러운 가운데 마지막 우리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오체투지를 하며 신을 섬기는 모습에서 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취해야하는 내면의 세계를 말해주는 듯 했다. 마지막으로 들릴 예정이었던 파슈파티넛(힌두의 성지이며 화장터)은 시간상 다음으로 미루고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다. 12일간의 일정 속에 정이 흠뻑 든 피상을 비롯한 스텝들과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가족이 기다리는 우리조국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대장정을 마쳤다. 아쉬운 마음은 창가로 바라보이는 히말라야 설원에 남겨 놓고...

이번 히말라야 오지마을 문화 체험단은 히말라야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향기 속에서 지아를 찾고, 삶의 공간에서 능동적 사고를 가지는데 한몫을 하고자 하였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다른 문화권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고 봉사를 통한 인간 내면의 성숙도를 높여 한 단계 진보한 삶의 영혼을 찾고자 한 것이다. 네팔 어린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순수한 열정을 가진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내 가족의 소중함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다면 오늘의 과정이 평생 큰 추억이 될 것이다.

이번 히말라야 오지마을 문화 체험단은 히말라야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향기 속에서 지아를 찾고, 삶의 공간에서 능동적 사고를 가지는데 한몫을 하고자 하였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다른 문화권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고 봉사를 통한 인간 내면의 성숙도를 높여 한 단계 진보한 삶의 영혼을 찾고자 한 것이다. 네팔 어린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순수한 열정을 가진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내 가족의 소중함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다면 오늘의 과정이 평생 큰 추억이 될 것이다.

충동문 체육대회 참가기



신 동 주

· 현 용암중학교 1학년

나는 화창한 가을 날씨에 해마다 열리는 충북대학교충동문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아빠와 함께 충북대학교 대운동장에 갔다. 5년 전에는 억지로 아빠 손에 끌려 왔었는데 사생대회도 재미있고 훌라후프 돌리기, 줄넘기, 부모와 함께하는 장기자랑도 재미있었다. 아빠는 내년에는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야만 하신단다. 나는 이 번 체육대회가 마지막이니 이번만큼은 열심히 참가해서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고 싶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이 되면 갈지 안 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년과 다르게 아빠 학교를 응원을 하러니 종목이 변경되어 응원을 못해 아쉬웠다. 아빠가 챙겨주는 점심을 먹고 간식을 먹으니 기분이 좋았다. 아빠 학교 선생님들이 이것저것 먹을 것을 주셔서 많이 먹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은근히 경품에 신경이 쓰였다. 우리 집에는 TV가 낡고 작아서 만화 영화 보기가 친구들 집에서 보는 것보다 나쁘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TV나

당첨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오후 경기가 빨리 끝나길 은근히 바랐다. 아빠는 할머니가 아프셔서 빨리 시골에 가야 된다고 하셨지만 나는 끝까지 있어야 된다고 떼를 썼다.

원래 나는 행사 때 경품당첨은 잘 안된다. 그래서 아빠 말에 따를까 말까 고민도 했다. 어쨌든 작년에는 대학생 형들이 많이 경품을 탔지만 올해는 동문 어른들이 많이 탔다. 혹시나 하고 경품 추첨 내내 기다렸지만 내 번호는 불려지지 않았다. 기분이 나빴다. 마지막 추첨이 있을 때 실망으로 집에 가려고 일어났다. 집에 가려는 생각에 내 번호가 불려지는 것을 듣지 못했는데 옆에 있던 선생님이 '네 번호야' 하는 바람에 엉겁결에 뛰어나갔다. 정신이 멍했다. 하늘에 붓 떠있는 것 같았다. 최고 경품인 냉장고를 탔다. 선생님들이 축하해주었다. 아빠도 감사를 주시며 좋아하셨다. 집에서 사진도 찍고 식구들이 다들 좋아했다.

내년에는 어떡할까 벌써 고민이다. 내년에도 아빠 동문체육대회에 따라가고 싶은데 아빠가 다른 데로 전근가면 못 갈까봐 걱정이다. 5년 동안 해마다 기다려졌었는데...

부 : 신해인(수교 78), 원봉초등학교 6학년 3반 신동주



2008 IWSC
국제주류품평회
실버상 수상

www.cbsoju.co.kr



(주)충북소주 대표이사
장 덕 수

시원한 청풍이

충북인을 응원합니다!

Cool한 인생, 시원한 인생

초청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럽고 깨끗한 소주



*경고: 지나친 음주는 건강해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